이 생활이 바로 과학이요 의학이요 진리입니다

☞ A17면에서 계속

면 너무 가난하고 남편은 머리가 이상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방에다 가둬 놓고,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하겠으니까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. 그러니까 허둥지둥 허둥지둥, 소금을 팔아 죽거리라도 마련해야 들어가겠으니까 허둥지둥 새벽같이 나가서 팔고선,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저녁에 오는 겁니다. 요만큼 남겨 가지고 말입니다.

그걸 볼 때 말입니다, 너무나 순진하단 말입니다. 가식이 없어. '요거를 먼저 떠서 내가 해야 부처님의 덕을 보지.' 하는 가식도 없더란 얘기입니다. 요거 너무나 순진하지 않습니까?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. 이거를 먼저 떠 놓아야만이 불공이 된다는 생각은 좀 지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, 진실한 마음. "스님,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는 스님이 정말이지 이 도리를 아신다면,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죽겠는 걸 아신다면 저를 살려 주십시오." 하고 그 소금 남은 거를 탁탁 털어 놓고, 사심 없이 털어 놓고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손색없이, 걸릴 게 없이 주어도 손색이 나지 않아요.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남편을 고쳐서 지금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집도 사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김밥을 말아 오라고 그랬대요. 그래서 소금 장수 버리고선 김밥을 말아 들이게 돼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괜찮게 삽니다.

참, 여러분이 오셔도요, 다 달라요. 그분은 습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여기 와서 뭐, 공부할 새도 없고 그랬는데 이젠 자궁암이 걸렸다나요? 그렇다고 또 삐쭉 오더니 말입니다, "스님, 스님! 저는요, 하도 이 엉치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젠 벌 수가 없어서요, 병원에 가 보니까 자궁암이래요. 그런데 스님, 어떡하면 좋죠? 제가 살아야 여섯 식구를 다 살릴 텐데, 자식이 오밀조밀한 게 다섯이고 이러니 이걸 어떡하면 좋죠?" 이러는 데는, 공부하기 이전에 말입니다, 그거는 공부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"그래? 그럼 어떡하지? 알았어. 가 봐."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오면 오는 대로 히히 웃으면서 "스님, 나 다 나았어요." "어떻게 해서 나았어?" "뭘 어떻게 해서 나아요? '알았다' 고 그러시지 않았어요?" 하거든요.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'스님이 알았다고만 하면 낫는다' 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, 이게. 문제는 그 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. 너무도 급박한 사람이라 아예, 그걸 그냥 콱…. 돈도 없겠다 뭐, 좀 좋습니까? 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. 그냥 맡겨 버리는 겁니다. '너,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멋대로 해라.' 하는 식이죠. 그리고 진실히 믿었기 때문이죠.

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 도를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의 마음자리 하나가 그렇게 천만 가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 자기 끌고 가는 마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, 지금 내 팔자가 금방 가서 차에 치여 죽을 팔자라고 해도, "팔자를 가서 보니까 스님,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병이 들지 않으면 꼭 죽겠답니다." 이래도 "허무한 소리 하지도 마라, 얘. 네 생각하기에 달렸어. 이놈아! 눈물, 피 이런 걸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 흘리지 말고 살아. 편리하게 살아라. 종교는 편리한 거다. 인간이 고등 동물로 태어나서 90%, 100%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, 인간이 그렇게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터지면 그대로 도다. 그러니 편리하게 살아라." 이럽니다.

그럼 팔자 운명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죠.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진다면 스스로서 이 마음이 말입니다, '이거는 옳다 그르다' 하고 마음에 생기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. 어떻게 그렇게 '옳다 그르다' 하는 게 스스로 생기나.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. 구태여 그렇게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지어 놓기 때문입니다. 고정관념에, 고정되게 그냥 자기의 방침대로, 자기가 보고 듣고 사는 대로 그냥, 본 대로 그냥, 습대로 그냥 내놓는 거죠. 그런데 물리가 글쎄,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그 물리가 왜들 안 터집니까. 왜?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.

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쉬게 됐는데 신이 한 짝이 떨어졌더랍니다. 그래 신을 툭툭 털면서 이거를 맞추려고 이러니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 하는 소리가 "너는 그 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신을 버려 봐라. 신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 봐라. 네 가죽신도 있는데 왜 버리지 못하느냐."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'신을 놓치면 내 이 발바닥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느냐.' 이랬습니다.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,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"그래, 발바닥이 아파?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그 신을 벗지 못하겠다고? 이놈아, 벗어 봐! 신이 저절로 생길 테니까." 이러거든요. 그게 이치에 닿지도 않거든, 도대체 그 사람으로서는.

그런데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데에 어느 노인네가 신을, 미투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선, 파는 게 아니라 길 가고 오는 사람한테 줘.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신도 얻어 갖고 노비도 얻어 갖고 아, 이러고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물리가 조금 터져 가지고선 '야, 나도 이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나 했으면….'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참,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. 무학 대사가 애당초에 처음에 길을 나서서 갈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.

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요, 그러니 그러한 마음 하나 돌리기가…,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. 내가 지금 금방 죽을 건데요, 참, 이걸 뭐라고…. 난 내 멋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인제는 죽게 됐다.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죽게 됐다. 이게 나타나 있는 거니까 이걸로써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.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말입니다, '자기가 끌고 다니려면 자기가 고쳐서 끌고 다니든지 자기가 그냥 부숴 버리든지 맘대로 해라.' 하고선 맡겨 두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났고, 오줌으로 뭘로 그 나쁜 게 다 나가고 다 해결이 났고, 또 한 사람은 '에이유, 그래도 병원으로 가야지.' 이러고 뛰어간 사람은 죽었답니다.

"그것이 어디 나변에 있느냐?" 하겠지만 엊그저께 일도 그렇습니다. 야, 뇌염 환자로서 정말 급한, 뇌염이 아주 급하게 돼 가지고선 금방 비틀어지고 눈이 까지고 그러는데 누가 이리로 데리고 오겠습니까? 병원으로 가지. 여기 아마 여러분이 다 계셔도 병원으로 가지 이리로 안 올 겁니다. 병원으로 일단 가가지고 연락은 할지언정 이리로 안 데려올 겁니다. 그건 뭐,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. 그렇게 하겠습니까, 안 하겠습니까?

그런데 그 사람은 말입니다, 다 넘어가고 다 죽게 된 걸 끌고 왔어요. 그냥 이렇게 안고, 어린애인데요, 그 큰 어린애를 이렇게 안고 싸 가지고 눈이 힐떡 넘어가고 이렇게 피가 흐르고 그러는 걸 그냥 들고 온 거예요.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.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, 도대체. 그런데 어이가 없어서요, "아니, 병원으로 데려가지 왜 이리로 데려왔어?" 하니까,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, 병원에 가도 이거는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이거야.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방을 두고 내가 왜 그리로 가느냐 이거야. 이렇게 좋은 약방을 두고. 아, 나 그 노인네 참! 그, 여자분인데요, 그래서 "응, 알았어. 병원에 안 가 봤어?" 그러니까 안 가 봤답니다. 그냥 이리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.

그래서 그러면 가라고,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것도 딸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어떡하면 이게 나을까 했는데, 그 도리를 자식은 모르니까 바로 가자마자 자식이 병원으로 또 데리고 갔는데, 낫게 해 달라고 하면서 안고 갔던 모양이죠. 병원에 가는 동안에 나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더랍니다. 이러니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, 지금 내가 그 마음에 달렸다 그러는 겁니다. 이 마음이, 자기를 끌고 가는 이 마음, 한 점도 없는 마음,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묘법이냐, 묘하냐 이겁니다, 응?

그것뿐이겠습니까? 수없이 그런 일들이 오는데…. 그럼 내 이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심부름꾼이 됐느냐 하고 한번 볼 때 여기는 참, 그렇게 안팎으로 비밀을 지켜 주는 데도 없습니다. 아들 딸들이라면 전부 비밀을 지켜서 장가보내고 시집보내는 데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부 일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,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렇게 볼 때 100%라면 70%는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. 그럼 왜 30%는 없는가? 30%는 마음이 닿지 않아서 못할 뿐 아니라 너무 기울어서 못하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. 그럼 색을 보고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이 과학인 줄 모르고, 의학인 줄 모르고, 모든 이 생활이 진리인 줄 모르고 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팡이죠.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신비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는 걸, 도도하다는 걸 모르거든요, 모두가.

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도 자기를 따르랬지 믿으라고 그런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나왔겠느냐. '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' 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야. 그러면 자기 하나만 말했느냐. 아닙니다. '모두 각자' 소리를 거기다 넣질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생각에 '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' 고 가르쳤는데, "바담 풍" 하니까 자기도 "바담 풍" 한 거나 똑같이 말입니다.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. 우리가 지혜가 있고 물리가 좀 터졌다면 책자를 그렇게 편집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.

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세워 놓고 잘 되게 하겠다고 애를 쓰기 이전에 진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무어든지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. 아니 할 수 없고 아니 될 수 없고.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. 단,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고에서 빠져나오고 또 병고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지고, 우리가 계발하는 겁니다. 계발도 정신 계발이 아니라 심성 계발로서의 정신으로 오관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구슬이 스스로 돌아갈 때 계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(녹음 안됨) …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그놈의 게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니 어떡하죠? 표현이 말입니다.

그러니 그 팔자 운명 이런 것도 각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꼭 이 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'저 일을 하자.' 하고선 저 일을 했을 때 이거보다 몇 배 이익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각본대로 돼 있는 겁니까? 저 일도 자기가 하게끔 주어져 있으니까 저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'저 일로 가야지.' 하고선 이 일을 또 바꾸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나왔고 또 안 가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가서 손해를 보는 수도 있고.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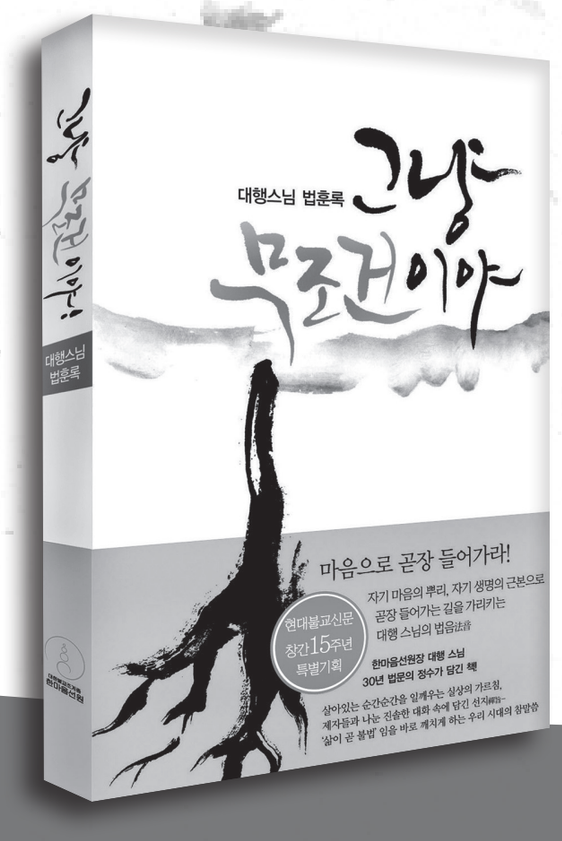
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추가 없으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 프로펠러는 항상 동서가 없이, 너 나가 없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생활입니다. 추가 없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이 추의 근본이 바로 태양의 근본도 될 수 있고 우주의 근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

(다음 호에 계속)

> 체 없는 마음의 에너지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
> 용도에 따라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
> 작은 그릇을 작은 그릇에 담깁니다.
>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.

※위 법문은 1987년 5월 3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)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

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

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
'삶이 곧 불법'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
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주문은 현불샵 !
02)2004-8216
농협 053-01-269062
(주)현대불교신문사

마음을 밝히는 가르침
대행스님 법훈록
그냥 무조건이야

양장본 / 211쪽 / 값 11,000원

www.hyunbulshop.com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,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